

개관 10주년 국립세종도서관, 기념 행사 '풍성'

입력 2023.12.07. 오후 2:33

12일 작가와의 만남, 공연,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



국립세종도서관 전경. 사진=국립세종도서관 제공

국립세종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12일 오전 11시 도서관 1층 로비에서 기념 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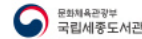
세종도서관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개관했으며, '정부·공공기관의 정책입안과 실현과정 지원'이란 기능과 함께 대표 국립문화시설로서 자리매김 했다는 평이다.

세종도서관은 이날 세종시 등 충청권 주요 기관 관계자와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, 세종도서관 역대 관장들, 한국도서관협회 등 범도서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한다.

기념식은 도서관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된다.

먼저 그간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정책정보 협력 기관(대외경제정책연구원·한국개발연구원·한국보건사회연구원)과 도서관 이용자 세 가족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한다.

또 지난 9월 열린 '개관 10주년 기념 그림 공모전' 최우수상 선정 수상자에게도 시상한다.



국립 세종도서관 개관10주년 기념행사

함께 성장하는 우리
십년지기



2023.
12.12.(화)
11:00-18:00
국립세종도서관

프로그램 Program

11:00-11:30	개관 10주년 기념식
11:30-12:30	특별 공연 왕진 박(비디오펠름, 퍼지컬 앙상블/퍼지스)
14:00-15:30	특별 강연 김영하 작가 - 소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
15:40-16:40	음악낭독극 연진서연 - 소설 '긴긴밤'
17:00-18:00	특별 공연 가수 3인 3색(가수: 가수 김병도)

국립세종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. 사진=국립세종도서관 제공

축하 문화행사도 선보인다. 퓨전 국악 밴드 '엑스(AUX)'와 뮤지컬 앙상블 '데파스'의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 전망이다.

이어 문화행사에선 도서관에서 1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김영하 작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하고, 소설의 세계에 대해 이용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.

또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'긴긴밤'을 음악이 있는 낭독극으로 선보

이고, 가수'109'의 공연도 선보인다.

이밖에 도서관 책 속 인물을 표현한 '양철인간' 마임 공연과, '10주년 기념 그림 공모전 전시', 빼어난 도서관 경관을 찾아보는 '도서관 8경 스탬프 투어', '도서관 인생네컷'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.

차경례 세종도서관장은 "지난 10년간 국립세종도서관은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보고이자 지식문화 생태계의 랜드마크 역할을 선도해 왔다"며 "개관 10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것"이라고 말했다.

곽우석 기자(wooskw@daejonilbo.com)

Copyright © 대전일보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이기사주소 <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656/0000072168>
